

타이어업계, 전기차 타고 실적 고속질주... 4분기도 '드라이브'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106% ↑
'아이온' 사계절용 등 풀 라인업

금호타이어 영업익 4045% 급증
EV6·ID.4 크로즈 등에 공급 중

넥센타이어 영업익 697억 6215% ↑
아이오닉6에 신차용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 크루젠 EV HP71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 장착 차량

국내 타이어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인치·전기차 타이어 등의 판매 상승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지난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이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고품질 타이어 판매도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3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 2조 3401억원, 영업이익 39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106%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16.9%로 1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0.2%에서 각각 9.8%,

10.1%로 급증했다. 매출이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역대급으로 급증한 덕분이다. 금호타이어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962억원으로 전년대비 4045.6% 늘었고 순이익도 33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넥센타이어도 6215% 급증한 6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과 슈퍼카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집중, 코로나19 당시 급등했던 물류비가 안정화되면서 원가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올 3분기 18인치 이상 고인치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43.4%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타이어업계는 고부가가치 타

이어 글로벌 시장에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최초로 사계절용, 퍼포먼스용, 겨울용 타이어까지 전기차 전용 풀 라인업을 구축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로 아이온(iON)이다. 아이온의 특별함은 설계 단계부터 하이 퍼포먼스 프리미엄 전기차를 타깃으로 연구 개발됐다. 순수 전기 스포츠카와 같은 고툭력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2022년 5월 유럽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같은 해 9월과 12월에 각각 국내와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 올해 5월에는 중국 시장에도 선보였다. 현대차 아이오닉 6를 비롯해

아우디 Q4 e-트론, BMW 그란쿠페 i4, 포르쉐 타이칸, 테슬라 모델Y·모델3 등에 신차용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슈퍼카 브랜드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 2026년까지 15억 750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9 EV SOLUS TA91'와 '크루젠 EV HP71'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마제스티9 EV SOLUS TA91과 크루젠 EV HP71은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행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이다. 특히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을 기반으로 첨단 EV 기술이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기아 EV6를 비롯해 폭스바겐의 'ID.4 크로즈' 차량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공장 증설과 광주공장 이전 및 신공장 설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아이오닉 6에 신차용 타이어 2개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BMW iX1에도 신차용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타이어 판매 확대와 해상운임 안정화 등으로 올 4분기 수익성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고무·카본블랙 등 원자재 가격과 해상운임비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외부 요인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며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된 고인치·고성능 전기차 타이어의 판매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실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타이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동이 심한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작전성능 발전... K-잠수함 수출 박차”

한화오션, K-잠수함 수출전망
“해외국가서 장보고함등에 관심
캐나다·폴란드 등에 선제적 영업”

한화오션이 K-잠수함 수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대한해군협회 개최 '대한민국 해군 창설 78주년 기념 제7회 안보세미나'에서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의 장점·성능과 K-잠수함 수출전망에 대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화오션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다수의 해외국가들이 한화오션에서 건조되고 있는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한화오션은 글로벌 안보 수요를 파악하고, 캐나다·

폴란드·필리핀 등에서 선제적으로 K-잠수함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장보고III 배치-I '도산안장호함'보다 작전 성능과 잠항 시간이 발전된 디젤 잠수함 모델이다. 배수량과 잠수함 길이를 늘렸고, 수직 발사관 등 무장 체계를 강화했다. 연료전지 체계, 말굽형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주요 핵심 장비도 늘렸다.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은 잠항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추진체계가 적용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디젤 추진 잠수함이다. 기존 납축전지를 장착한 장보고III 배치-I보다 잠

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었다. 또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플랫폼 및 주요 장비의 80%를 국산화하며 안정적인 국내 기자재 공급망을 구축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세계 8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개발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플랫폼 및 주요 장비의 80%를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각 국가마다 상이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잠수함 설계 변경과 건조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라며 “대한민국 200여 부품회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잠수함 유지보수 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도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D현대, 2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레이저보트 자율운항솔루션 등 3개 제품

HD현대가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차세대 혁신 기술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HD현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CES 2024 혁신상(Innovation Awards)' 발표에서 센서 융합 기반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 건설기계용 AI 기반 머신 어시스턴스, 레이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 등 총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개최를 앞두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인 기업의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HD현대는 지난 'CES 2023'에서도 총 9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CES 혁신상을 받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첨단 모빌리티 부문과 이동식 디바이스 부문에서 수상작을 배출했다.

'센서 융합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은 굴착기 주변의 사람을 감지해 자

동으로 정지함으로써 장비와 작업자 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카메라와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융합 기술을 활용해 기존 단일 센서 제품보다 장애물 선별 능력과 거리 측정의 정확성을 크게 개선했다. 굴착기, 휠로더, 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장비 속도도 및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기반 머신 어시스턴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HD현대의 무인·전동화 기술력이 담겨있는 제품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내년 美에 전기차충전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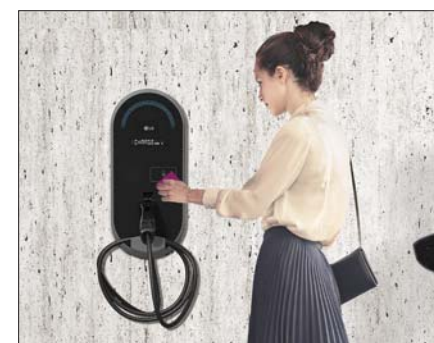
상반기 완속·급속 2종 출시 후
하반기 급속충전기 라인업 확대

LG전자 전기차 충전기가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LG전자는 상반기에 11kW급 완속충전기와 175kW급 급속충전기 등 2종을 먼저 출시한다. 완속충전기는 자유롭게 설치하고 전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을 제어해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고, 급속충전기는 CCS1과 NACS 충전 방식 모두를 지원해 다양한 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LG전자는 하반기에 상업용과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급속 충전기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고객 요구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LG전자

에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형 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 핵심 기술 기업인 애플망고를 인수하며 충전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내재화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조주완 사장이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전기화'를 주목할 변곡점으로 꼽은 바 있다. B2B와 신사업 성장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지스타에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존

네오 G9·OLED G9 등 체험기회

삼성전자 오디세이 모니터가 게이머들을 찾아갔다.

삼성전자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 오디세이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파트너십으로 체험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게임 파트너사들과 ▲오

디세이 네오 G9 ▲오디세이 OLED G9 ▲오디세이 아크 2세대를 비롯해 ▲오디세이 네오 G8 ▲오디세이 G7 ▲오디세이 G6 ▲오디세이 G5 등 다양한 게이밍 모니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게임사인 구글플레이·넷마블·위메이드·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게임사 부스에서 각각의 게임 장르에 적합한 오디세이 모니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김재용 기자